

# 현대상선

2018.05.28

# 현대상선 주가 급등, 남북경협 기대에 국제유가 하락도 '훈풍'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 2018-05-28 17:24:46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은 남북교류가 확대될수록 연안 운송이 늘어나는 등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북한 무연탄 등 자원을 한국 기업이 구입해 들여오는 과정에서 육로 운송보다 해상 운송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 육로가 풀리면 북극항로 개발 등 북방 물류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도 내려 현대상선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는 데 한몫했다.

현대상선은 국제유가가 내리면 유류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25일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67.88달러, 브렌트유는 런던ICE선물시장에서 배럴당 76.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거래일보다 각각 4.00%와 2.98% 떨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 국제유가는 그나마 한풀 꺾여

파이낸셜뉴스 | 윤재준 | 2018.05.28 17:16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베네수엘라의 감산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도 적어 당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던 유가 전망이 50달러대로 수정되고 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을 넘었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25일 전거래일보다 3% 떨어지면서 배럴당 76달러에 접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지난 4월에 안정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이었던 원유 재고가 선진국의 경우 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해부터 3억600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지난주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OPEC 공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과 러시아가 유가가 너무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감산에도 대비해 1일 생산량을 100만배럴로 늘리는 것을 다음달 22일 오스트리아 빈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배럴은 세계 하루 원유 수요의 1%에 해당되는 규모다. FT는 유가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량 재조정을 통해 배럴당 50~6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것 이란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국제유가 2018.05.25 기준 (배럴당)

■ WTI원유

**67.88** 달러

▼2.83 -4.00%

■ 브렌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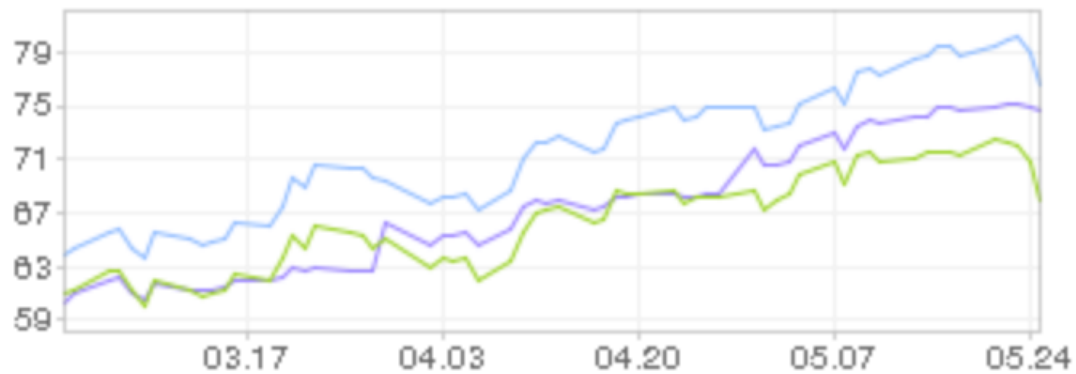
**76.44** 달러

▼2.35 -2.98%

■ 두바이유

**74.45** 달러

▼0.33 -0.44%



### 외국인·기관

더보기 >

일자	외국인	지분율	기관	일별주가	등락률
05, 28	+2,253,667	6.25%	-380,212	6,600	+22.45%
05, 25	+693,056	5.53%	+196,198	5,390	-8.18%
05, 24	-58,581	5.31%	-3,349	5,870	-1.84%
05, 23	+511,458	5.32%	+45,254	5,980	-0.33%
05, 21	+44,873	5.16%	-21,429	6,000	0.00%
05, 18	+21,385	5.15%	+11,108	6,000	-0.83%



2018.05.28 밤 10시 현재 국제 유가

